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6호 【루계 제24854호】 주체104(2015)년 3월 17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3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테인 세인 딴마련방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굴락크 에벨레 죠나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경모의 정이 담긴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나라의 안정과 사회적발전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가 진행된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가 3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

당의 웅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최근년간 체육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여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지고있으며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위용을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사기와 혁명열은 백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시기 체육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나라의 체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체육부문과 련관단위의 공로있는 선수, 감독들, 일군들이 참가하게 된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는 주체체육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양로원건설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자재를 보장해주도록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로원을 잘 꾸리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로원의 외부 및 내부형성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게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된데 대하여,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프랑스신문 《러 마땅》,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찾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식수를 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라오스통신, 네팔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일과 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시면서 3.8국제부녀절을 맞는 비행사안해들을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화장품과 식료품을 마련해가지고 가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은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를 시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도방어중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을 지키고있다고 하시면서 해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섬방어대들에 강력한 화력타격수단들을 더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 에호 모스크비방송, 스뿌뜨니크방송, 인터네트통신 브랸스크.루, 이란의 파르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벌가리아의 포쿠스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안따라통신, 인터네트신문 《뗌뽀》, 캄보쟈신문 《꼭 쏜때피앱》,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올렸다.

로씨야, 이란, 인도네시아, 캄보쟈, 도이췰란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체육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 마련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전국적으로 수많은 체육시설들이 새로 건설 및 개건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속에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몇해사이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체육시설들이 새로 건설 및 개건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나라의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체육문화거점의 본보기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훌륭히 일떠서거나 개건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5월1일경기장이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되였다.

15만석의 관람석을 가진 경기장에는 축구장과 륙상주로, 예비운동실, 선수침실, 감독실, 심판원실, 검사등록실 등이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꾸려졌으며 수영장, 탁구장, 미니골프장, 피로회복실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과 봉사망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쯘히 갖추어져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는 물론 관람자들의 편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경기장을 조국의 만년재부로 더욱 빛내여가려는 체육성과 김일성경기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김일성경기장이 령도업적단위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국제국내경기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는 경기시설이 훌륭히 마련되여 날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다채로운 대중체육활동을 벌리고 체육경기도 관람하는 체육문화거점로 변모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양각도에 체육촌이 새로 건설되여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연건축면적이 수만㎡에 달하는 양각도체육촌은 지열난방체계가 도입된 합숙과 훈련관들, 과학기술지식보급실, 목욕탕 등 현대적인 시설들과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는 체육활동기지이다.

선군조국의 또 하나의 재보로 빛을 뿌리는 기념비적창조물인 청춘거리 체육촌이 다양한 종목의 국제국내경기들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로 훌륭히 개건되였다.

매 경기관들에 갖추어진 종목별경기진행에 필요한 빛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조명설비들도 높은 수준이고 우리 체육인들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훈련과 경기를 마음껏 할수 있게 온도보장체계도 갖추어졌다. 여러 경기장, 경기관들마다에 심판원실, 기자회견실, 약물검사실, 선수대기실 등이 잘 꾸려지고 현대적인 비품들이 갖추어졌을뿐아니라 여러 경기관들에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첨단수준의 종목별심판체계가 도입되여 그 어떤 국제경기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롱구, 탁구, 력기경기관을 비롯한 모든 경기관들과 축구경기장, 체육인식당이 선수들의 경기와 훈련, 그들에 대한 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현대적인 기재와 시설들을 갖추고 개건됨으로써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징으로 이름떨치고있는 마식령스키장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가장 훌륭한 대기념비적창조물의 하나이다.

마식령의 풍치수려한 천연산악지대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이 일떠섬으로써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군장병들은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세계를 놀래우는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마식령스키장에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마음껏 스키와 스케트, 썰매를 타며 체력을 단련하고있으며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마식령산발들을 뒤흔들며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종합체육관, 대중체육봉사기지로 훌륭히 개건된 평양체육관은 체육강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내달리며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1만석을 넘는 관람석과 롱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각종 체육종목들의 경기와 훈련을 보장할수 있는 최상급의 경기장과 훈련실, 침실, 식당 등이 손색없이 꾸려졌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릉라인민체육공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20만여㎡의 부지면적을 가진 릉라인민체육공원에는 여러개의 잔디축구장과 롱구장, 배구장,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각종 대중체육시설들이 꾸려져있으며 이곳을 찾는 인민들이 문화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있도록 소공원들과 식당, 청량음료점들도 갖추어져있다. 릉라인민체육공원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마음껏 체육활동을 벌리고 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어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종합적인 대중체육봉사기지로 되고있다.

모든 조건을 세계적수준에서 갖춘 다기능적인 체육봉사시설인 문수물놀이장, 대중승마봉사기지인 미림승마구락부, 나라의 빙상체육발전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기지의 하나인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한 체육활동의 거점들이 거창한 규모로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체육발전을 보다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대동강과 보통강주변의 경치좋은 장소들과 주택지구를 비롯한 수도의 곳곳에 대중체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체육공원들이 수많이 꾸려져 사회적으로 체육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수도 평양뿐만아니라 각 도, 시, 군들의 경기장, 체육관들에 대한 개건공사가 훌륭히 완공되거나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을 추동하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보다 풍만한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수산성체육단에서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영장을 개건한것을 비롯하여 체육기술발전의 거점인 체육단들에서도 체육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국가종합축구단과 함께 홰불체육단, 압록강체육단,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등 여러 체육단들에 인공잔디축구장들이 꾸려져 선수들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중앙과 각 도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들에서 산중훈련기지, 육체훈련관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건설하거나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들은 우리의 체육강국건설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가까운 앞날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체육강국을 반드시 건설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체이다.

체육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있는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체육강국건설의 활로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시설들의 건설 및 개건을 직접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몸소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과 체육인들에게 최상의 체육시설들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평양체육관, 5월1일경기장 등을 찾으시며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여름의 무더위와 12월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산세험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고찾으시여 인민을 위한 대중체육관광기지로 훌륭하게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나라의 체육발전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체력단련에 적극 이바지해온 평양체육관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개건된 체육관에서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위대한 사랑의 손길아래 세계적수준의 체육시설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더욱 거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지금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가슴은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릴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으며 현대적으로 일떠선 체육문화거점들에서 다양한 대중체육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한껏 넘쳐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전국각지에 훌륭히 꾸려진 현대적인 체육시설들은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거세찬 체육열풍을 더욱 고조시키고 체육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전철호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드높은 열의

전국적으로 5만여정보의 논밭흙깔이 진행, 수십만t의 대용비료 생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사차비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5만여정보의 논밭에 흙깔이를 하였으며 수십만t의 대용비료를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흙깔이전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내밀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흙깔이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안악군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5 000여정보의 논밭에 많은 흙을 실어내였다. 연안, 배천군의 농업근로자들도 하루빨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제힘으로 2 000여정보의 포전에 흙깔이를 하였다. 은률, 청단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높이 세운 흙깔이전투목표를 제기일에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2만여정보의 논밭에 흙깔이를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 평안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차비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대동군일군들은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과 필지별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흙깔이목표를 면밀하게 세웠다. 또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흙을 포전들에 실어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성천군, 회창군, 은산군의 농업근로자들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높은 자각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많은 면적의 논밭에 흙깔이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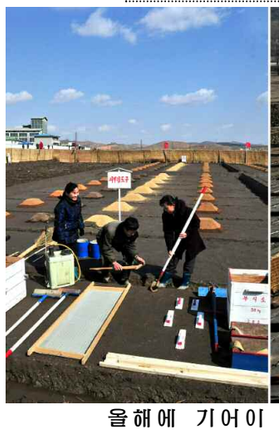
량강도,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도 흙깔이전투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대용린, 카리비료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의 농업근로자들이 이 투쟁에서 실적을 올리였다.

특히 덕천시의 농업근로자들은 불같은 충정과 애국적열정을 안고 티오균비료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북창군, 신양군의 농업근로자들도 대용린비료생산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황해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평양시의 농촌들에서도 대용카리비료생산실적을 하루가 다르게 부쩍 높이였다. 결과 현재까지 수십만t의 대용비료가 생산되여 올해의 알곡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모판부식토 실어내기와 흙보산비료생산, 논밭갈이 등 당면한 영농전투에서도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으로 벼모판씨뿌리기준비를 잘하고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성남 찍음

우리 식의 관측장치들을 연구개발

기상수문국 기상수문관측계기연구소에서

최근 기상수문국 기상수문관측계기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높은 창조정신으로 우리 식의 자동기상관측장치와 고층기상탐측기를 연구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새로운 자동기상관측장치와 고층기상탐측기가 개발됨으로써 기상수문부문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고 기상관측과 예보의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상수문부문에서 현대적인 기상관측설비들을 갖추어놓고 큰물예보와 기상예보를 정확히 하도록 하며 기상수문자료의 신속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허광소장을 비롯한 연구소 일군들은 기상수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빠른 기간안에 관측장치들의 현대화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박력있게 내밀었다.

그런 속에 장윤재실장을 과제책임자로 하는 연구집단은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짧은 기간에 자동기상관측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바람속도와 방향, 강우량 등 6가지 지면기상관측지표들을 자동적으로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종합관측체계이다.

연구과정에 박병진, 장유철, 김광진, 장창섭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장치의 핵심부인 자료수집기에 관측신호처리회로를 합리적으로 구성한 이들은 피타는 탐구와 창조적사색을 기울여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관측신호처리프로그람을 끝끝내 개발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수감부들과 온도측정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일수 있는 회로를 새로 설계제작하는 등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맞게 2중전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동기상관측장치가 야외에 설치되는것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벼락방지대책도 세웠다.

고층관측계기연구집단도 예보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인 고층기상탐측기를 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하루빨리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닌 과학자들은 고층기상요소들의 측정을 위한 수감부들을 선정하고 불리한 고층대기조건에서 관측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는 회로들을 새롭게 설계제작하였다.

박학운, 김학철, 김명원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지칠줄 모르는 탐구정신으로 탐측기의 정확한 측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보정방법들을 확립하였다. 이들은 또한 고층대기조건에서 수감부 및 전자요소들의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한데 이어 새로 개발된 고층기상탐측기에 맞는 검정방법들도 확립하였다.

현대적인 고층기상탐측기에는 연구의 나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과학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훌륭한 결실을 마련하는데 바쳐진 박학철실장의 남모르는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수문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맡고있다는 비상한 자각안고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해 분발해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오철훈

배움의 천리길에 빛나는 거룩한 자욱

해마다 뜻깊은 3월이 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사나운 눈보라 휘몰아치는 험산준령을 넘고넘으시며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혁명의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을 헤쳐나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일찌기 조선을 알고 조선을 위하여 배우리라는 큰뜻을 안으시고 천리장정의 성스러운 자욱을 아로새기신 절세위인의 위대한 애국의 발걸음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하기에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잊지 못할 92년전의 나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과 같이 어리신 나이에 애국의 큰뜻을 품으시고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의 지도자는 력사에서 찾아볼수 없습니다.》

류례없이 암담하였던 비운의 그 나날이 추억의 물결을 타고 파도쳐온다.

나라잃어 설음도 많던 민족수난의 세월 이 땅에는 그 얼마나 원성에 넘친 발걸음소리들이 처절히 울렸던가.

간악무도한 일제의 쇠사슬에 묶이워 끌려가는 무고한 인민들의 발걸음소리들이 방방곡곡에서 들려왔고 원한의 아리랑고개를 넘고 눈물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느며 고국산천을 하직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독립운동의 간판을 든 사람들은 외세의 힘을 빌어보려고 구걸의 길을 떠났고 돈냥이나 있는 집 자식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싸들고 해외에로 류학의 길을 떠났다.

바로 그때 얼어붙은 겨레와 민족의 넋을 애국의 열로 녹이실 절세의 위인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조선에서 태여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로의 배움의 천리길에 용약 나서시였던것이다.

력사의 그날은 주체12(1923)년 3월 16일이였다.

사나운 눈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이른아침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동무들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한걸음, 한걸음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단정한 학생복차림에 강반석어머님께서 밤새워 지으신 두루마기를 입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가지고가시는 짐이란 고작 자그마한 보꾸레미가 전부였다.

그속에는 조선력사와 지리책, 몇권의 학습장 그리고 옷 한벌이 들어있었다.

부모님이 마련해준 려비조차도 그리 넉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속에 뜨겁게 고패친것은 바로 이 길이 선조들의 뼈가 묻혀있고 태를 묻은 조국으로 가는 길이고 장차 조국해방의 격전장으로 이어질 력사의 길이라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였다.

천고의 수림을 헤치고 찬바람, 눈보라 휘몰아치는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천리길은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참으로 멀고도 간고한 길이였다.

아무리 걷고걸으셔도 고개가 끝이 나지 않고 새 고개가 연방 나타나는 험산준령…

대낮에도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북방의 산악지대, 무쇠다리를 가졌다는 강계포수들도 오르기 저어하는 눈덮인 오가산과 수많은 높은 령을 단신으로 넘고넘어야 하시였으니 우리 수령님의 로고가 얼마나 크시였으랴.

세찬 눈보라에 거목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때로는 맹수가 길목에서 어슬렁거리는 위험지대도 있었다. 그러나 모진 추위와 사나운 짐승, 눈덮인 험한 산악도 우리 수령님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지 못하였다.

조선에 나가서 우리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것만 똑똑히 알아도 그것은 큰 소득이라고, 고향에 나가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있는가를 체험하면 자기 할바를 잘 알게 될것이라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간곡한 당부가 그이의 발걸음을 순간도 지체할수 없게 하였던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천리길에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별의별 시련과 고생을 다 겪으셨지만 그보다도 길가에서 보신 류랑민들과 조국산천의 눈물겨운 현실이 못 견디게 참기 어려우시였다.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제멋대로 강탈해가는 침략자들과 하루하루 목숨을 겨우 유지하며 고역에 시달리는 로동자들, 더우기 한창 배울 나이에 헐벗은 몸으로 오소리굴같은 갱속에서 광석을 져나르는 소년로동자들, 산간오지의 오막살이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기막힌 생활처지…

조국땅 그 어디서나 보이는것은 수난속에 허덕이는 겨레의 모습이였고 인민들의 원한서린 한숨소리뿐이였다.

이 모든것을 목격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삼천리강산을 비참한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강도 일제에게 복수의 철추를 안기리라는 억척의 맹세가 세차게 끓어번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팔도구를 떠나신 때로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의 해질무렵 마침내 오매에도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에 도착하시였다.

력사의 그날 혼자몸으로 천리길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을 보시며 만경대일가분들께서는 얼마나 놀라와하시였던가.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께서는 너무도 어리신 나이에 멀고 험한 천리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네가 아마 몇해후면 백두산에 걸터앉아 동해바다에다 대고 발을 씻자고 할게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나와 보내신 두해동안에 많은것을 배우고 체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이 반동적인 《자치》운동을 벌리고있었으나 광범한 인민대중은 피를 흘리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어떤 곤난과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억센 인민, 그 어떤 힘으로써도 훼손시킬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독립의지를 뜨겁게 감수하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며 이런 인민을 잘 조직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간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그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나에게 있어서는 그 천리길이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고 쓰시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조국을 잘 알며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원대한 뜻을 키우신 애국의 길, 혁명의 천리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애국, 애족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 우리 혁명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승리의 천만리길을 얼마나 힘차게 걸어왔던가.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피바다,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며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무모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를 타승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부강번영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절세의 위인이 남기신 거룩한 자욱과 더불어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이룩된 자랑찬 승리는 오늘도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성스러운 영광의 행로우에 빛나는 배움의 천리길은 혁명의 새 세대들이 영원히 심장에 새기고 따라걸어야 할 위대한 애국의 길이다.

배움의 천리길의 로정은 단순히 지리학적개념으로만 계산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이 땅의 새 세대들에게 혁명의 길에서 무엇부터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배움의 길이며 선군혁명승리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억세게 걸어나가게 하는 길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신 거룩한 자욱을 따라 오늘도 온 나라의 학생청소년들이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힘차게 걷고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걷고 또 걸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학생청소년들…

그렇다.

우리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히 꾸려진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찾고 또 찾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의 발걸음소리가 그 얼마나 장엄히 울려퍼지고있는것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강철남

영원한 어머니의 품

승리자의 긍지와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드높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순간도 떨어져서 살수 없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이라는 정치조직이 생겨 우리 당과 같이 인민의 심장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뚜렷이 새겨진 당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로동계급의 당을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며 당의 모든 활동은 어디까지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정치리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이끄시는 전기간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구현하시여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 마음속상처도 제때에 가셔주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뜨겁게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평범한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공로자로, 로력혁신자로 자라났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우리 당을 어머니라 정답게 부르며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할 신념을 안고 당을 따라 모진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쳐나가는것이다.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 땅우에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어머니당을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어머니당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 어머니가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듯이 당조직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당의 품에 안아주고 장군님과 정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이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리여 이 땅우에는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실현에로 지향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이 구호에 숭엄히 새겨져있다.

그렇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따사로운 사랑과 믿음을 생명수로 받아안으며 자라난 아들딸들이기에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이 나라의 천만군민이 터치는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격정의 목소리는 그리도 뜨겁고 절절한것이다.

영원히 안겨살 어머니당이여.

채히성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일랜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더블린

아일랜드공화국 대통령

마이클 히긴스각하

나는 아일랜드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와 인사를 보내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3월 16일 평 양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바치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두수발전소현지지도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두수발전소현지지도 40돐 기념보고회가 1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김덕훈내각부총리, 전승훈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발전소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초급당비서 원일학은 기념보고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4(1975)년 3월 17일 서두수발전소를 찾으시여 전력생산과 발전소운영관리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1호발전소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체89(2000)년 8월 또다시 이곳 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며 발전기들의 기술상태와 전력생산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40년간 발전소가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표식비들을 정중히 건립하여 발전소에 새기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길이 빛내일수 있게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여 해마다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고 전력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발전소앞에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틀어쥐고 과학기술경쟁, 실력경쟁의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전력생산에 실지 도움이 될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더 많이 창안도입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종합축사와 온실을 비롯한 후방기지를 더 잘 꾸려 로동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복구전투를 적극 다그쳐 발전소구내와 주변의 산들에 많은 나무를 심어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력증산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성교양을 강화하여

개성시 림한리당위원회에서

개성시 림한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생활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대중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주, 월, 분기별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으며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있다.

또한 위대성교양사업을 해설모임과 연구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당세포비서들과 선동원들이 작업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해설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농장포전으로 나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쉴참을 리용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지켜지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가지고 감동깊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모두 어버이수령님의 후손답게,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일념안고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류승균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위력한 사상적무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뛰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18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체86(1997)년 3월 17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불굴의 기상을 백배해주는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약동하는 시대의 기상에는 위대한 혁명정신과 그것을 체현한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비껴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정신이며 천만군민을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키우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과 예술활동을 통하여 군인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울데 대한 문제, 당선전선동사업을 현실적요구와 정황에 맞게 화선식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8년간은 혁명적군인정신의 무궁무진한 위력이 힘있게 과시된 긍지높은 로정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실록이 엮어지던 력사의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을 강행돌파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고 성강의 봉화, 함남의 불길을 련이어 지펴올려 기적과 위훈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선군조선의 억센 기상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창조된 《마식령속도》는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하는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이 낳은 또 하나의 일당백공격속도, 시대의 진군속도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맥박치고있기에 위대한 선군시대는 불멸의 영웅적위훈으로 끝없이 아로새겨질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제일투사들로 키우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수령의 사상을 혁명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당의 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것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게 한다는데 혁명적군인정신의 비상한 견인력이 있다.

인간의 참된 삶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고 오직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굳세게 투쟁하는데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니면 누구나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게 된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한 리경심영웅,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정을 지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바다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킨 해군용사들의 영웅적인 삶의 근본바탕에는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이 자리잡고있었다.

혁명실천은 사상과 신념의 견결성을 검증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전진의 보폭을 같이하며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으로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고있다. 지난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남새온실을 돌아보시면서 인민군대는 당의 명령과 방침, 지시에 대해서는 흥정을 모르고 에도는 법이 없다고, 무슨 일이나 즉시에 정확히 집행하고 보고하는것을 체질화하고있다고, 이것이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 바로 이것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귀한 정신세계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사회주의대가정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가 차넘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뜨겁고도 진실한 동지적사랑과 의리는 열정의 원천이고 창조의 원동력이며 아름다운 생활의 활력소이다. 전체 인민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길에 자기의 진심을 깡그리 바치는 여기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서, 조국번영의 격전장에서 피와 살을 나누고 사선을 함께 넘으며 믿음과 정으로 굳게 결합되는 과정에 공고화된 혁명적동지애에 바탕을 두고있다.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고 희생된 영웅들, 뜻하지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속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고귀한 생을 마친 군인들의 혁명적동지애의 삶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는데 동지애로 시작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동지애로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배우는 과정에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이라는 자각을 깊이 새기고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묵묵히 일해나가는 선군시대의 공로자들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 따뜻이 돌보아주고 심한 화상을 입은 한 로동자처녀의 얼굴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동지애의 미풍들이 날마다 꽃펴나고있기에 사회주의대가정에는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있는것이다. 하나의 사상과 뜻과 정으로 굳게 뭉쳐 진정한 전우, 참다운 동지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억척불변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인민군군인들의 실지투쟁과 생활에서 발양되는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구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자양분으로 하여 억세게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투쟁의 구호, 실천의 구호이다. 조국의 보위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복무할것을 성스러운 군기앞에서 피끓는 심장으로 맹세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놓게 하는 억척의 힘으로 되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전에로 나아간 14명 육탄자폭비행사들이 발휘한 조국결사수호정신, 처녀의 몸으로 굴착기를 운전하여 언제건설에 이바지한 녀병사로력영웅의 위훈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마식령의 천연산지에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스키장을 짧은 기간에 문명국상징의 하나로 일떠세운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기적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전초선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가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군대도 따를수 없는 참된 애국자들이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원대한 포부와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지식인들, 스스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수많은 애국자들에게 떠받들려 우리 조국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병사시절의 한모습으로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수, 돌격대가 되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커다란 믿음을 심장에 새긴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당이 맡겨준 새로운 초소마다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야말로 우리 인민을 애국의 한길로 떠밀어주는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오늘도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답게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은 곧 정치사상적위력이다. 혁명적군인정신, 이 필승불패의 사상적무기가 있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선군시대는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 기적의 시대로 끝없이 빛날것이다.

김성룡

과학기술의 룡마를 이들처럼 타자

천내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새 기술보급사업을 잘하여 전국에 소문이 났던 천내군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땅도 그 땅이지만 과학기술의 힘으로 용을 쓰며 기백있게 전진하는 천내군의 숨결은 더욱 새로와졌다.

가성소다와 저열탄연소첨가제생산기지가 그쯘히 꾸려져 비누, 종이와 같은 인민소비품의 질제고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였으며 주민용땔감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려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고농도린세균비료, 티오균비료, 람조류생물활성퇴비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여 군농사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가져왔다. 집짐승먹이첨가제, 물고기먹이첨가제개발에 성공하여 축산과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군안의 수산협동조합들에서 바다가양식도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당과 국가앞에 한개 군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기 고장을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어떤 자세로 뛰여들어야 하는가. 과학기술룡마의 고삐를 든든히 틀어쥐고 생산과 건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고있는 천내군일군들의 사업은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룡마의 기수는 누구인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 가나 과학기술을 중시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볼수 있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 일군들의 이야기도 들을수 있다. 그러나 시대를 알고 시대의 요구를 느낀다고 하여 일본새가 저절로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격동하는 현실은 과학기술이라는 훌륭한 룡마를 능숙하게 타야 할 기수문제에 가장 큰 주목을 돌리게 하고있다. 그런 측면에서 천내군의 현실을 보면 시사적인 점이 적지 않다.

새기술보급소만 보아도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２０１０년 １２월 전국의 모든 시, 구역, 군들에 새기술보급소를 꾸리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운영을 짜고들도록 귀중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군책임일군들은 새기술보급소를 꾸리는 일을 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거점을 마련하는 문제로, 더 나아가서 군이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는가 못 타는가 하는 사활적인 중대사로 받아들이였다. 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군의 곳곳을 밟으며 새기술보급소의 부지를 정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과학기술보급기지로만이 아니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와 생산, 보급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거점이 될수 있도록 멀리 앞을 내다보며 새기술보급소의 건물도 큼직하게 일떠세웠다.

군이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는데서 무엇보다 필요한것이 인재였다. 일군들은 인재에 의해 과학기술발전이 추동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부터 자기 고장에 든든히 발붙이고 방법론있게 해나갔다. 현재 천내군새기술보급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장들과 기술발전기사, 보급원들은 멀리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난 기간 큰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은 더우기 아니다. 바로 군책임일군들이 자기 고장에서 땅속의 보석을 캐내듯 찾아낸 실력가형, 실천가형의 쟁쟁한 인재들이다. 그들속에는 편의봉사관리소 작업반장출신의 실장도 있고 약초재배사업소 로동자출신의 실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금성협동농장 분조장출신의 실장도 있다. 기술발전기사들과 보급원들도 일군들이 현실에서 한명한명 선발해낸 실력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재들로 새기술보급소의 력량을 꾸리는것으로 한개 군을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는 문제들이 척척 풀린다고 볼수 있는가.

아니다. 인재는 찾아야 할뿐아니라 룡마에 태워야 한다. 새기술보급소는 이름그대로 국내외의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정상적으로 통보받아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보급일반화하는 사명을 지니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천내군새기술보급소의 경우는 좀 다르다.

가성소다생산공정, 고농도린세균비료생산공정,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공정… 새 기술보급이나 과학연구단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생산기업소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군책임일군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를 새기술보급소에 여러가지 생산공정들을 꾸리는데서 찾았다. 인재들을 실천속에서 훌륭히 키워 룡마의 기수로 만드는 길도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군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활성화와 질제고,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과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하나하나 선정하고 새기술보급소의 성원들을 앞장에서 이끌었다.

저열탄연소첨가제개발과정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군과 린접한 시에서 만들고있는 저열탄연소첨가제의 생산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령하 수십℃의 저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새로 만드는것이 필요했다. 그밖의 기술적인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새기술보급소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군당책임일군은 꼭 저온에서만 만들어야 하겠는가, 어느 한 자료를 보니 ７０～８０℃에서도 저열탄연소첨가제를 만들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책임일군의 말에서 힘을 얻은 그들은 개발의 첫걸음을 내짚었다. 일반적으로 새기술개발과 도입과정은 많은 투자를 전제로 한다. 군책임일군들은 조건이 어려웠지만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고장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다. 하지만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책임일군들이 서있었다. 자신들부터가 기술서적들을 탐독하고 새기술보급소 성원들에게 자료들도 듬뿍 안겨주면서 새 기술개발의 선도자가 되여 이끌었다. 그렇게 여러달이 흘러 저열탄연소첨가제개발에 끝끝내 성공하게 되였으며 자체로 제작한 생산설비는 구멍탄공장으로 옮겨져 주민들의 땔감문제해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가성소다와 각종 유기질비료생산기술도 그렇게 완성하여 도입하였다. 가성소다생산공정을 몇달만 돌리면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한해동안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가성소다가 충분히 마련되고 고농도린세균비료종균과 티오균비료종균은 여러 다른 군들에서까지 가져가고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룡마를 탄 인재들의 창조력은 갈수록 커졌다. 그들은 축산과 양어를 추켜세우는데 이바지하게 될 먹이첨가제개발에서도 성공했다.

군일군들은 인재를 찾고 그들을 키우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몇명의 인재가 아니라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과학기술룡마의 훌륭한 기수로 키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데 모를 박았다.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일군들부터가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잘 알아야 지도사업도 바로할수 있었던것이다. 과학지식이 없고 기술을 모르는 일군들은 아무리 현실에 들어가도 당정책집행에서 어떤 편향이 나타나고 걸린 고리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찾아낼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였다. 책임일군들은 새기술보급소로부터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매 시기 알아야 할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정상적으로 통보받는것을 어길수 없는 공정으로 만들었다. 자신들부터가 《학생》이 되여 학습을 심도있게 하는 한편 군안의 당, 행정일군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초급일군들에게까지 자료를 속속 내려보내주었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한주일에 한번씩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에 직접 《교원》이 되여 인식정형에 대한 료해도 깐깐히 하였다.

《오늘 책임비서가 또 〈시험〉을 치겠구만.》

처음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이런 말들도 오갔다. 하지만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의 부단한 습득이 점차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면서 그러한 말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일군들부터가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의 소유자로 준비되니 아래단위들에 대한 지도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옳바로 포착하게 되였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도 과학적으로 따라세울수 있었다.

두해전 １２월 어느 한 협동농장의 탈곡장을 지나던 군당책임일군은 옆에 쌓여있는 어느 한 유기질비료더미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이미 군에서는 ８월에 각 협동농장들의 유기질비료생산에 필요한 종균을 다 보장해주었었다. 기술적요구대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야 했다. 그런데 비료더미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비벼도 보았으나 응당한 수준에 있지 못했다.

즉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였다. 그 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추궁하고 더 높은 요구성만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였다. 군의 당, 행정일군들이 총동원되여 기술적요구대로 다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작업이 벌어졌다. 일상적인 학습을 통하여 그 생산방법을 환히 꿰든 일군들의 일본새는 달랐다. 이것은 그 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더욱 분발시킨 계기로, 하나의 생동한 과학기술강의로 되였다.

너도나도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배우려는 열의는 일군들뿐아니라 군안의 근로자들속에서도 높아졌다. 군은 하나의 훌륭한 《학교》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교원》, 《학생》으로 되였다. 오늘날 과학기술열풍은 군의 어느 단위, 어느 일터에서나 드세차게 몰아치고있다.

과학기술이라는 룡마의 기수는 누구인가. 한두명의 책임일군이나 몇명의 인재가 아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힘있는 이 말속에 뚜렷한 대답이 있다. 그 실현방도는 복잡한 기술서적이나 부피두터운 교과서에 있지 않다. 일군들부터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키는 송풍기가 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이끌면 어느 부문, 어느 단위, 어느 고장에서나 과학기술인재화는 머지않아 실현될것이다. 과학기술인재의 대부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온 나라에 거창한 창조와 비약의 불길을 지펴올리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천내군일군들의 실례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구보로가 아니라 습보로

과학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장엄한 투쟁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특징지어지는 전인민적대진군이다. 하다면 그 속도는 무엇에 의하여 담보되는가.

근본요인의 하나가 과학기술성과의 신속한 도입이다. 개발로만 남고 보급하는것으로만 그치는 새 기술은 과학기술중시와 거리가 멀다. 중요한것은 현실에서 은이 날때까지 근기있게 내미는 동시에 질풍같은 속도를 보장하는것이다.

최근 몇해동안 천내군 알곡생산량은 계통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지난해만 보아도 그 전해에 비해 정보당수확고를 １．５t씩 더 끌어올린 단위들이 적지 않다.

비결은 명백하다. 군책임일군들부터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사색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아 현실에 적극 구현한데 있다. 특히 잘하고있는것이 새 기술보급과 함께 그것을 현실에 빨리 활용하여 더 실인 은이 나타나도록 완강하게 밀고나가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군일군들은 새 기술보급과 활용의 빠른 일치를 한개 군의 발전전망문제로만이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과 직결되여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보았다.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고농도린세균비료, 티오균비료,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자체로 생산하여 군농사에 도입할 때 있은 일이다. 그 도입속도를 높이자면 새로운 작전이 필요했다. 군책임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비료주기와 관련한 기술규정을 보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작전은 그후에 펼쳐졌다. 매 협동농장들에 일정한 면적의 시험포전들이 생겨났다. 거기에서는 군일군들과 새기술보급소 성원들이 비료주기를 하였고 각 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따로 정해진 포전에서 비료주기를 하였다.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사이의 경쟁을 조직한것이였다.

승부를 위한 경쟁이 아니였다. 작업의 쉴참에는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데 어울려 비료주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서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가을철에 시험포전들과 각 협동농장의 다른 포전들에서의 정보당수확량을 놓고 경험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사업도 따라세웠다. 그것은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열백마디의 말이 아니라 실지체험으로 최단기간에 인식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제는 군안의 협동농장 일군들뿐아니라 작업반장, 분조장들까지 새기술보급소에 때없이 찾아와 새로운 영농방법이 또 나온것이 없는가고 묻군 한다는 실례 하나만으로도 온 군에 과학농사열풍이 얼마나 세차게 일고있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다른 단위들에서 이룩된 새 기술성과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데서 군책임일군들이 중시하는것 역시 속도이다. 어느 한 군에서 강냉이종자저온처리기술을 받아들여 덕을 보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일군들은 한달음에 달려갔다. 현실은 훌륭한 학교였다. 사연을 알게 된 그곳 군일군들은 자기 일처럼 발벗고나섰다. 경험적인 이야기도 들려주고 기술자료도 아낌없이 넘겨주었다. 다른 고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험과 땀이 슴배인 자료들을 귀중한 씨앗처럼 간직하고 돌아온 천내군 일군들은 그것을 당해에 온 군에 도입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해당한 자료를 군안의 각 단위들에 내려보내주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부터가 강사가 되여 기술강습에 출연하였다. 뿐만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았으며 파악이 부족한 단위 일군들을 위해 재강습도 조직하였다. 끝장을 볼 때까지, 현실에서 은이 날때까지 빠른 속도로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귀중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는 밑거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지방산업공장의 크지 않은 생산현장에 들려보아도, 산골농장의 자그마한 분조포전에 서보아도, 바다가의 수산협동조합에 가보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려는 열의를 충분히 엿볼수 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새롭다. 목표가 높은것만큼 속도도 비상하다는것을 대뜸 느낄수 있다.

군에서 현대화의 본보기단위로 정한 기초식품공장에 가보면 콩산유, 콩우유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고 당의 의도에 맞게 통합생산체계까지 완벽하게 구축할 목표밑에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가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만날수 있다. 토기공장에 가보면 제염소의 결정지에 깔 타일생산공정과 군의 면모를 크게 일신시킬 색기와생산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농기계작업소에 들려보면 현대적인 중주파유도로를 받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도를 볼수 있다.

당치수산협동조합과 삼포수산협동조합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곳 일군들은 예로부터 유명한 자기 고장의 굴양식을 보다 과학화하는 사업과 함께 해삼양식까지 시작했다. 원래 이곳 바다가조건에서는 해삼양식이 거의나 불가능한것으로 되여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립장이 불가능성을 확고한 가능성으로 만들었다. 해삼양식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여러 단위에도 가보고 해당 기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협동연구도 활발히 벌린 결과 선진적인 방법으로 해삼양식을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그리 크지 않은 군이고 아직은 전국의 앞장에 섰다고 볼수 없는 단위이다. 하지만 산간지대와 벌방지대, 바다까지 끼고있는 군의 어디에서나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가 주렁질 래일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새겨안을수 있다.

《몇년후에 와보십시오.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에 새기였기때문에 전망은 확고합니다.》

이것은 천내군의 누구를 만나보아도 듣게 되는 자신심에 넘친 이야기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 그것은 남이 선사해주는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것도 아니다. 바로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능을 굳게 믿는데서 생긴다. 이렇게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실지체험을 통해 과학기술의 위력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고 온 군에 과학기술열풍을 드세차게 일으켜 너도나도 과학기술전에 뛰여들게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구보로가 아니라 습보로 내달릴수 있는 확실한 방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조하신 황금산, 황금벌의 력사와 오늘 우리 당이 창조하고있는 황금해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는 길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세계를 향해 단숨에 솟구쳐오를수 있는 비약의 활로도 다름아닌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는데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의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수 없으며 또 일군의 자격도 없다. 격동하는 현실은 천내군 책임일군들처럼 자기 고장 일군들과 근로자들모두를 과학기술의 룡마에 태우고 질풍같이 내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리영민

전기절약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예비는 찾을수록 있다

안주절연물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안주절연물공장에서 생산활성화의 동음이 우렁차게 울리고있다.

1.4분기 절연물생산계획을 보름이상 앞당겨 수행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질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있다. 보다 주목되는것은 이 모든 성과가 종전의 1/3이나 줄어든 전력보장조건에서 이룩된것이다. 비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기업관리를 알심있게 하고있는 지배인 로력영웅 리금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창조적인 일본새와 관련되여있다.

얼마전 공장을 찾은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긴장한 전기문제를 자체로 해결한 사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고 들을수록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는 시사적인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비를 찾고 증산하고 절약하는 사업을 사무실에서 계획수자나 내려보내는식으로 실무적으로 하지 말고 생산자대중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하여 이 사업이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하여야 합니다.》

한개 단위의 생산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부족되는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가 뛴다. 그렇다고 웃기관이나 전력공업부문에 매달려 해결하려고만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안주절연물공장 지배인의 확고한 견해이다. 전력이 긴장할수록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절약예비를 찾아내는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도라고 주장하고있다.

지난해 이 단위도 다른 공장, 기업소들과 마찬가지로 공급되는 전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느끼였다. 발전소와 탄광들, 기계공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절연물보장에 미치게 될 후과를 생각하는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러면 긴장한 전력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공장에서는 교차생산조직을 보다 짜고드는것과 동시에 여러가지 작전을 펼치였다. 참모부서의 일군들이 직접 측정계기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의 전력소비정형을 깐깐히 따져보았다. 다시말하여 공정별, 기대별전력소비정형과 선로의 기술적상태, 과대용량의 설비가 어떤것이며 어느 공정에 에네르기절약형의 생산방법을 받아들일수 있는가 등에 대하여 기술자들과 하나하나 검토하였다.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니 지난 시기에는 눈에 띄지 않던 전기절약예비가 적지 않았다.

실례가 있다. 그전의 공장전력공급계통은 하나로 통합되여있었다. 이런 경우 교차생산조직에 따라 어느 한 생산공정을 먼저 돌리자고 해도 다른 공정에까지 전기가 투입된다. 이때 돌리지 말아야 할 생산공정의 선로와 조작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결코 적은 량이 아니였다. 차단기와 조작반을 비롯한 전력설비들의 집중적인 보수정비사업도 소홀히 볼것이 아니였다. 투입과 차단시 기술적특성이 떨어진 차단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저항과 먼지가 쌓인 조작반에서의 미세한 도중손실까지도 크나적으나 전기량비로 이어졌기때문이다.

공장에서는 대담하게 로력과 시간을 뚝 떼내여 공정별 단독선로공사와 전력설비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정비를 진행하였다. 뚜렷한 목표밑에 온 공장이 떨쳐나서니 성과는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일군들이 보다 중시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전기절약예비를 더 많이 찾아내는것과 동시에 에네르기절약형의 생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해나간것이다.

절연와니스생산공정의 반응기에서 나온 절연물을 동력이 없이 흐름식으로 희석기로 넘어가도록 생산공정을 개조하게 된 동기를 놓고보자.

어느날 현장을 돌아보던 지배인은 반응기와 희석공정사이에 있는 진공뽐프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였다. 락차고를 조성하여 흐름식으로 개조하면 진공뽐프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반응기의 반제품을 희석기로 넘길수 있었다. 속구구로 따져보니 진공뽐프에서 한달에 수천kWh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해도 1년을 합치면 결코 무시할수 없는 량이였다.

이런 에네르기절약형의 설비개조는 생산공정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였다. 겸하여 과대용량의 전동기들을 알맞는것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고 짜고들었다.

공장기술일군의 말에 의하면 가능한 모든 생산공정을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여기에 사소한 절약예비까지 합쳐놓으니 웬만한 생산공정을 돌릴수 있는 전력예비가 조성되였다고 한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다음으로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을 전기절약투쟁에로 방법론있게 이끌어나갔다. 주목되는것은 전기분야에 박식한 4명의 기능공들이 매 생산공정의 전력소비정형을 따져보면서 항시적으로 군중을 계발시키도록 한것이다.

이 공장에 가면 매 생산공정에 따라 단독선로가 늘여져있고 실시간으로 전력부하상태를 감시할수 있는 측정장치가 있다. 전기수리반의 한옆에 있는 이곳에서 기능공들은 전력설비들의 수리정비를 진행하면서 매 생산공정에서 제정된 전력소비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에 해당한 대책을 세우군 한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선로와 조작반, 전동기를 비롯한 전기설비들의 불량한 점들이 미연에 퇴치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일수 있었다. 그리고 전기분야에 박식한 기능공들이 늘 생산자들과 휩쓸리며 그들과 전기절약방도를 함께 찾아내게 되니 대중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결국 공장에서는 종전보다 적은 전기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할수 있었다.

공장지배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옳은 조직사업이 안받침되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기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하면서 절감한것입니다.》

안주절연물공장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모든 단위들에서 전기절약예비와 가능성을 더 많이 찾아 효과있게 리용할때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주요생산공정을 전기절약형으로

부령식료공장에서

부령식료공장에서 설비들의 기술개조사업에 힘을 넣어 적지 않은 전기절약예비를 얻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료와 연료, 동력을 절약하는것은 생산을 늘이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시기 인민들의 호평받는 새 제품들을 적극 개발하며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데서 동력문제해결은 그 어느 단위에서나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 하다면 이곳 일군들이 찾은 방도는 무엇인가.

지난해 군내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공장의 일군들은 새로운 잡도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발동시키는 한편 생산공정별에 따르는 설비들의 가동실태와 전기소비량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이 과정에 일군들은 종전에는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게 되였다. 흐름식공정을 이루는 설비들의 생산능력에서의 차이였다.

실례로 사탕생산의 중요공정을 놓고보아도 당화공정을 거친 사탕원료는 련이어 진공농축기에 주입되였다. 그런데 진공농축기의 처리능력은 당화탕크의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여 체적이 큰 당화탕크에 만부하를 걸수 없었고 능력 대 생산량의 불균형은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가져오는 근본원인으로 되고있었다.

이것은 단지 사탕생산과정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상이 아니였다. 과자, 음료 등 흐름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생산공정들의 경우에도 실정은 매한가지였다. 공정상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고 동시에 가동시켜야 하는 설비들인것으로 하여 교차생산조직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설비들의 기술개조사업은 품이 좀 들어도 일단 해놓으면 큰 덕을 볼수 있는 일이였다. 공장의 일군들이 이것을 생산활성화의 중심고리로 내세우게 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결심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책임기사, 공무작업반장을 비롯한 능력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망라된 기술혁신조가 무어졌다. 구체적인 단계별목표밑에 일부 설비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용량이 큰 설비들을 들어내고 새로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진행되였다.

결실은 컸다. 종전보다 체적이 훨씬 작은 당화탕크가 새로 제작설치됨으로써 제품의 질이 보다 높아졌고 전력소비량은 2/3로 줄어들었다. 과자구이로를 비롯한 여러대의 설비들을 개조하여 얻은 전력예비는 공장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밑천으로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올해에 들어와 설비들의 기술개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에 의거하는 장절임생산공정을 새로 갖추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은을 내는 능률적인 용접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증산과 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습니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아래 수산사업소들에서 배수리기일을 종전에 비해 훨씬 줄이고있다. 그 요인의 하나가 바로 능률높은 용접기를 개발도입한데 있다.

일반적으로는 용접공 한명이 한대의 용접기를 사용하는것이 상례로 되고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대의 용접기로 여러명이 동시에 용접작업을 하고있다. 일명 다자식용접기라고 부르는 이 용접기는 여러가지 우점으로 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그것은 개별적인 용접기를 여러대 만드는것보다 같은 능률을 내는 이 용접기 한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재가 적기때문만이 아니다. 보다 주목되는 점은 전력사용량에서의 큰 차이가 있다는것이다. 본격적인 배수리전투기간에는 용접량이 매우 많은데 이 다자식용접기를 리용하면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

또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용접공들이 자유자재로 배의 임의의 부위에서 작업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배수리속도를 높일수 있으며 용접의 질도 훨씬 향상시킬수 있다.

이런 용접기제작에는 그리 높은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양화수산사업소 배수리분공장만 놓고보아도 고장난 변압기를 리용하여 다자식용접기를 제작하였는데 그것은 배수리계획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이 용접기로는 교류용접과 직류용접을 다 할수 있습니다. 종전에 용접공들이 작업장소와 대상이 달라지는데 따라 용접기를 바꾸며 계속 옮겨가던 일이 없어졌습니다.》

양화수산사업소 배수리분공장 책임기사 박창식동무의 이야기는 새길수록 시사해주는바가 크다.

윤금찬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 공동구호에서 ‖

효능높은 의약품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라!

대중의 심장을 울리면 못해낼 일이 없다

강계고려약가공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해에 강계고려약가공공장에서는 지표별에 따르는 고려약생산계획을 3년전에 비해 160%로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찔광이엑스, 미나리엑스를 비롯한 계획외 지표들의 생산량도 훨씬 늘이였다.

성과의 요인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지난 시기 공장에서 자재확보와 생산설비의 현대화실현에 품을 많이 들인 결과에 이룩된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공장의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일군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일군입니다.》

공장의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일관하게 틀어쥐고 내민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이였다.

부원 윤정애동무는 찾아온 사연을 듣고나서 우리에게 지난 기간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온 공장일군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그것은 생산자대중에게 공장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고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해마다 집짐승마리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온실농사 등에 품을 들여 점심식사는 물론 밤늦게까지 일하는 종업원들의 저녁식사와 아침식사를 성의껏 보장해주고있다.

또한 해마다 뜻깊은 명절날들과 국가적기념일들을 계기로 수산물과 고기, 남새 등을 공급해주었으며 가을이면 겨울용석탄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마련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공장의 종업원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는 일군들이 친부모가 되여 결혼식준비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앞장에서 해결해주었다.

김명남, 김춘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10여년세월 결혼상을 차려준 사람들만 해도 이제는 공장종업원수의 근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이와 함께 당조직의 지도밑에 종업원들에게 살림집들도 원만히 마련해주었다.

그 나날에는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다.

지난해 여름 지배인은 열관리공으로 일하는 한 로동자가 집이 좁아 생활상불편을 느끼고있는 사실을 료해하고 안타까이 뛰여다녔다.

당시는 한시라도 빨리 약초를 끌어들여 건조시키는 사업을 비롯하여 그가 관심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설비의 현대화실현을 위해 한푼의 자금마저 아껴써야 하던 때였다.

더우기 집사정으로 말하면 지배인의 경우라고 하여 별로 좋은 형편이 못되였다.

그러나 지배인으로 일해오는 10여년동안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언제나 중시해온 김명남동무는 어려운 길을 걷고 또 걸어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었다.

그로부터 몇달후 공장의 일군들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한 처녀로동자에게 살림집을 마련해주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있으며 로동자들을 위해 일군들이 있다는 확고한 관점에서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더불어 공장은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정든 집으로 자리잡았다. 강조나 호소로써가 아니라 실지 체험을 통하여 새겨안은 일터에 대한 애착은 생산적앙양에로 이어지고있다.

종업원들의 공장애가 얼마나 열렬한가를 보여주는 몇가지 실례가 있다.

휴식날이면 공장에서는 일군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제분공, 선반공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다. 그리고 사업상 혹은 생활상용무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의 일이 념려되여 집으로가 아니라 공장으로 먼저 들어서는 사람들속에는 이곳 일군들만이 아닌 종업원들도 있다.

하루라도 자기 일터, 자기 기대를 보지 않으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공장을 찾는다는 이들의 그 불같은 마음에서 어찌 혁신의 불바람이 일지 않을수가 있으랴.

해마다 약초채취기간이 되면 이곳 종업원들은 강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량림군과 장강군, 화평군 등의 산발들에 이동천막을 치고 수십일동안 험준한 산발들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채취한다.

그때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하는것은 주변마을 사람들까지 감동되여 약초채취전투를 도와주고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그렇게 거두어들인 약초만으로도 다음 한해동안은 쓰고도 남는다니 공장종업원들의 전투적인 일본새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현택호, 장광일동무를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은 생산기일을 줄이면서도 고려약엑스의 과학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추출공정의 콤퓨터조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것을 비롯하여 지난 몇해동안 생산설비의 현대화실현에서 좋은 결실들을 마련하였다.

기계수리공인 왕정필동무는 휴식날에 스스로 공장에 나와 여러곳을 돌아보던 도중 불비한 요소들을 즉시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 지난해에 공장의 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해마다 자체의 힘으로 고려약의 질을 높이면서도 그 품종수를 계속 늘여나가고있는 공장의 일군들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가 찾게 되는것이 있다.

단위종업원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는것은 단순히 일군들의 인간애와 사업작풍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어떻게 받드는가 하는 립장과 자세에 관한 문제이며 자기 단위의 사업성과를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잘하는 단위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강계고려약가공공장 일군들의 경험은 종업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후방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갈 때 어느 단위에서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시대의 물음앞에

◇ 지금 전국의 보건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의료일군들의 자질향상에서 된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열풍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일고있다. 또한 치료예방기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사이에 이루어진 전국적범위에서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지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보다 굳건히 다져지게 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올해에 더욱 발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각지 제약부문의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좋은 무기가 있다 해도 탄알이 없으면 소용이 없듯이 의약품이 부족하면 고마운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충분히 가닿을수 없기때문이다.

오늘의 현실은 각지 제약부문의 일군들에게 이렇게 묻고있다.

전국의 보건기관들에서 현재 리용하고있는 의약품들중에 자기 단위에서 만들어내놓은것은 과연 몇종이며 지난 시기에 비해 올해에는 얼마나 많은 의약품들을 생산할 열의에 넘쳐있는가고.

◇ 의약품생산의 성과여부는 자재나 원료, 설비에 앞서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새에 달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어깨우에 대고조의 운명이 놓여있습니다.》

신의주마이싱공장의 생산실적은 2005년까지만 해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의 30%계선에도 이르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2009년부터 해마다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있다.

평천고려약공장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지표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면서도 새로 연구완성된 30여종의 의약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사실 이 공장이라고 하여 남달리 조건이 좋은것은 아니다. 산을 끼고있는 지방의 고려약공장들과 달리 수도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약초확보는 항시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더우기 녀성들이 많은 공장의 특성은 생산설비의 현대화실현에서도 일련의 난관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의약품생산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 자각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하였다.

◇ 각지 제약부문의 일군들은 올해에 어떻게 하나 의약품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대중약품, 상비약품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항생제와 해열제, 소화제와 같은 대중약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놓아야 한다.

나라의 제약공업발전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흥남제약공장과 신의주마이싱공장을 비롯한 여러 제약공장들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다. 전국의 고려약공장일군들이 주변산들의 약초를 제때에 채취하여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기만 해도 해당 단위가 위치하고있는 시(구역), 군주민들의 의약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각지 제약부문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더없이 중요한 초소에 자기들을 세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색도 실천도 전투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일터마다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해야 한다.

백수십종의 의약품에 비낀 마음

평양산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효능높은 약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평양산원의 약무일군들이 해마다 백수십종의 의약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녀성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호평

몇해전 약국장 류정행동무는 한 의료일군으로부터 혈액정화용린유기질흡착제가 긴급히 요구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즉시 해당 단위로 달려가 해결해가지고 오기는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잘못될수도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날 그는 혈액정화용린유기질흡착제를 자체로 만들 결심을 굳혔다.

오염된 패혈증환자의 피를 전부 려과하여 인체내에 다시 넣어주는데 필요한 흡착제를 새로 제조한다는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얼마후 어느 한 단위에서 제조방법을 배워온 이곳 약무일군들은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혈액정화용린유기질흡착제를 끝내 만들어냈다.

어느날 약국장은 흡착제의 유효성분들이 자기들의 몸에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가를 다시금 검증해보고 치료에 리용할것을 제기하였다.

그후 류정행, 손수광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의료일군들은 혈액정화용린유기질흡착제가 자기들의 인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차례의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온 혈액정화용린유기질흡착제는 그후 패혈증에 걸린 산모들의 소생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의약품생산에 바쳐가는 이들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은 비단 혈액정화용린유기질흡착제에만 어려있지 않다.

그래서이다. 평양산원의 의약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관점

평양산원 약무일군들에 대한 취재를 하느라면 누구든 마음먹고 나서기만 하면 어떤 식물이든 약재로 만들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럴만 한 리유가 있다.

약제사 박금옥동무가 담쟁이덩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하던 1980년대초만 해도 그것이 약의 주원료로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근 10년동안의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1990년대초에 담쟁이덩굴의 약리작용을 밝혀낸 그는 이어 리뇨작용과 간염치료에 좋은 싸락약을 내놓았다.

그리고 2000년대 말엽에는 담쟁이덩굴로 부인질병치료에 좋은 알약과 냄새와 맛이 밥숭늉과 비슷한 약숭늉을 만들었다.

담쟁이덩굴로 만든 고려약들과 건강식품은 2개의 특허권과 발명권을 받았다.

그가 지난 30여년동안 냉초, 바꽃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10여종의 고려약들은 녀성들의 랭증치료 등에 널리 쓰이고있다.

약제사들인 오성실, 한광철동무들은 범싱아뿌리로 유선증치료약을 만들어 의료봉사활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리고 약제사 김경철동무는 회화나무열매를 리용하여 40~50대 초엽나이의 녀성들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인질병치료에서, 약제사 김철동무는 좌약기초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좋은 결실을 마련하여 환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어디에나 흔한 자재와 원료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가지수를 늘이게 된 비결에 대해 약제사 리순영동무는 의약품생산문제는 인민들에 대한 관점문제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모두가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에 있다고 말하였다.

보건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처럼 인민들의 건강을 자신들이 책임졌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약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평양제약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수질이 높은 물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

평양시의약품검정소에서

치료예방 및 의약품생산단위들을 비롯하여 보건부문에서 수질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수액이나 주사약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데서 첫째 조건이 바로 무균성이 철저히 보장된 물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지금 많은 병원들과 의약품생산단위들에서는 가장 순수한 물을 약품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최근 평양시의약품검정소에서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주사용수급의 수질특성을 가진 물을 련속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제작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의약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검정소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안은 소장 김영철, 검정원 리선경동무를 비롯한 검정소의 일군들과 검정원들은 수질을 더욱 높일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들은 전기와 랭각용수를 리용하여 증류수를 생산하고있는 일부 단위들과는 달리 이온교환법에 의한 순수한 물생산장치를 개발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종전의 설비로는 시간당 1.5kW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1.4L의 증류수밖에 생산할수 없었고 많은 랭각용수를 흘려보내야 하였다. 전력사정이 매우 긴장한 현 조건에서 이런 방법으로는 의약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증류수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수질이 높은 물을 생산할 방도는 없겠는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이들은 랭각용수를 전혀 쓰지 않고 시간당 15W의 전력으로 100L의 순수한 물을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로는 종전에 비해 전기를 훨씬 적게 쓰면서도 수질이 10배이상이나 높은 많은 량의 물을 생산할수 있었다. 그리고 장치의 기본원료인 이온수지를 재생하여 리용할수 있어 그 수명 또한 길었다.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기였다.

새로 개발한 장치를 여러 치료예방단위들에 도입하여 종합해보니 하루동안에만도 종전의 방법으로 증류수를 생산할 때보다 전력은 수백kWh, 물은 수천L나 절약되였을뿐아니라 생산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수질도 담보되였다.

전국의 모든 보건기관들에 이 장치를 도입한다면 절약되는 전기와 물은 실로 막대한것이다.

여러모로 실리가 큰 이 장치는 구조가 매우 간단하며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단위에서나 만들어 도입할수 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효능높은 의약품을 더 많이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검정원들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이 안아온 참으로 귀중한 열매였다.

지금 검정소에서는 새로운 장치가 현실에서 보다 큰 은을 내도록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으며 하루빨리 질좋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검정사업들을 방법론있게 잘 짜고들고있다.

주령봉

독자의 편지 우리 나라는 인간사랑의 화원입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예군인입니다. 하지만 저의 가슴속에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해빛이 가득히 흘러들고 있습니다.

5년전 어느날 한 젊은 부부가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정생활형편도 세세히 알아보고 땔감문제도 풀어주며 각근한 정을 부어주는것이였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구들인가고 물었지만 그들은 영예군인들을 도와주는것은 누구나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는것이였습니다.

명절때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자주 저의 집에 찾아와 여러가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도 안겨주면서 뜨거운 정을 부어주군 하는 그들입니다.

몇해전에야 저는 그들이 도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인 리성선동무와 시안의 어느 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박순희동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온돌수리를 한다는것을 알고는 세멘트도 마련해주었고 얼마전 3.8국제부녀절에는 저의 안해에게 기념품도 안겨주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들부부를 대할 때마다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내 조국의 참모습을 심장으로 보는것만 같아 가슴이 뭉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습니다. 진정 내 조국은 인간사랑의 화원입니다.

신의주시 석하2동 양영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를 만났다

메히꼬에서 진행된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9차 토론회에 참가한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2일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전국지도자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과 메히꼬로동당 지도부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조선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하여 전세계 공산당, 로동당, 진보정당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메히꼬로동당은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모든 정책들과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여기에는 메히꼬로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아바나 도착

꾸바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5일 아바나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꾸바외무성 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가지를 해도 국가적리익을 앞세울 때

‖ 평천지구고금속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

고금속사업소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파철무지부터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그러나 평천지구고금속사업소를 찾은 우리는 그처럼 많은 파철무지를 볼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올해 1, 2월계획 150%이상 초과완수, 3월계획수행량도 현재 100%계선…

놀라운 성과가 아닐수 없었다. 그런데 텅 비다싶이 된 파철적재장이 우리로서는 리해가 잘 가지 않았다.

취재과정에 우리는 비로소 그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소장 백종흡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일군들의 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수십개나 되는 수매소들의 파철수집량을 손금보듯 장악하고있는것이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해당 구역 기관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또 각 수매소들의 형편도 직접 알아보며 그에 따르는 사업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이렇게 하니 무엇이 좋았는가.

우선 사업소의 화물자동차리용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금속사업소들에서는 수송조직을 계획화하기 어렵다. 여러 구역의 수십개 수매소들에 파철이 언제까지 얼마나 수집되겠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해낼수 없기때문이다. 즉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의 수매사업결과에 따르는 파철량이 고정불변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힘든것이다.

만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송조직을 일률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화물자동차는 몇대밖에 없는데 수매소는 수십개나 되니 소경 막대질하는 식으로 일하다가는 손해만 볼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사업을 짜고드니 시간과 로력,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높은 실적을 내게 되였다.

좋은 점은 또한 수매소들에서의 파철수매량을 훨씬 늘일수 있는것이다.

수매소들에서는 파철뿐아니라 다른 종류의 유휴자재들도 많이 수집한다. 때문에 파철을 제때에 실어내가지 못하여 지내 많이 쌓이면 할수없이 파철수매를 당분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것을 수십개 수매소들에로 확대해놓고볼 때 그것은 결코 무시할수 없는 큰 문제이다. 그러니 파철량을 매일, 매시각 알아보고 제때에 실어내가는것은 더 많은 파철을 수집할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담보였다.

현재 사업소에서 대상하고있는 구역들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파철이 쉴새없이 수매되고 있지만 모래밭으로 스며들어가는 물처럼 제꺽제꺽 빠지니 수매사업에서도 최대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이 이로써 끝나는것은 아니다. 더 많은 파철을 수집할뿐아니라 또 그것을 철의 기지 강선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제강소에 가지 못하는 파철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것이다.

그러면 강선까지의 수송조직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가.

이 사업에서 기본은 화차수송조직을 면밀히 짜고드는것이다.

화차를 제때에 대지 못하면 연방 들이닥치는 파철실은 자동차들로 하여 사업소구내는 발들여놓을 짬도 없게 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소의 파철수집에 지장을 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화차들을 미리 대기시켜놓으면 화차머무름시간이 길어져 긴장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철도운수부문에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

하지만 일군들이 수매소들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고있으니 그런 일이 생길리 만무하였다.

례하면 오늘 실어온 파철 얼마에 래일 들어올 파철이 얼마이니 화차를 언제 몇량 조직해야 하겠다는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철도부문과 미리 련계를 취한다.

이렇게 되니 철도운수부문과 사업소 량자가 다 사업을 여유있게 내밀수 있어 이모저모로 좋았다.

사업소의 수송조직이 그토록 치밀해질수 있게 된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기중기의 성능을 개조한것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 사업소의 기중기가 특색있다. 대체로 쇠붙이를 다루는 기중기에서는 전자석을 리용한다. 그런데 전자석을 리용하면 일은 헐해서 좋지만 반면에 전력소비가 대단히 많아진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을 놓고볼 때 전자석리용은 결국 대포를 쏘아 참새를 잡는 격이라고 할수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백종흡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갈구리형식으로 된 6면바가지를 창안제작하였다. 이것은 전기를 절약하여 나라에 리득을 주는것은 물론 기중기리용률도 비할바 없이 높일수 있어 대단히 실리적이였다.

이렇듯 일군들이 각 수매소들의 파철수집량까지 손금보듯 환히 꿰들고있은 결과 화물자동차수송조직과 화차수송조직을 그토록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었으며 파철도 실어오는족족 해당 단위로 보낼수 있었다. 그러니 적재장에서 파철무지를 찾아보기 힘들수밖에…

물론 이렇게 련관단위의 형편까지 알아보며 사업을 짜고들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자기에게 차례지는 사업부담을 타산하기에 앞서 국가의 리익을 중시하는 이들처럼 하나를 해도 국가적견지에서 사고하며 어떻게 하나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는 애국의 마음으로 일해나갈 때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빈 적재장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한경철

력사와 현실은 침략자들을 고발한다

미국과 괴뢰들이 검은것도 희다고 우기며 세상사람들을 기만우롱하고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나보기 위해 책동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그들은 그 무슨 《북의 도발》이니, 《긴장격화》니 하며 도리여 우리를 걸고드는 한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의 《안정에 기여》할것이라는 해괴한 수작까지 늘어놓으며 저들의 전쟁책동을 정당화하고있다. 그야말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망발이 아닐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형적인 북침불장난소동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을 미국의 거대한 대량살륙무기전시장으로 만들어놓고 북침불장난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는 도발자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평화의 보자기를 씌우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과 괴뢰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전쟁위기고조의 근원으로서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지난 수십년간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북침전쟁연습의 범죄적력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초까지 계속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수십만의 침략군병력과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된 속에 몇달씩 진행된것으로 하여 세계최대규모의 핵시험전쟁, 예비전쟁으로 악명을 떨쳤다. 연습에 유사시 미국대통령이 리용하는 《EA—4B》전면핵전쟁지령기까지 투입된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을 노린것인가 하는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감출래야 감출수 없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으로 하여 미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받았으며 결국 1993년을 마지막으로 이 연습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남조선에서 미국과 괴뢰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된것은 결코 아니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중단으로 생길수 있는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1994년부터 《련합전시증원연습》이라는것을 벌리였다. 2008년부터 《련합전시증원연습》,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여지게 되였다. 호전광들은 이 전쟁연습에 초대형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쟁수단들과 수십만명의 침략무력을 참가시키면서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훈련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있다.

이 연습에는 침략의 선견대로 공인된 미해병대와 괴뢰해병대의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여 연습의 특별항목으로서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쌍룡》련합상륙훈련을 벌리군 한다. 그 누구를 《소멸》한다는 목표밑에 광란적으로 진행되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대규모련합상륙훈련이 그대로 재현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테두리내에서 《북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과 《대잠능력확보》를 떠들며 감행해온 련합해상훈련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당시 유사시의 전면전상황을 가상하여 벌어진 《3개해협봉쇄작전》의 련속이다.

결국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키 리졸브》, 《독수리》의 간판밑에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이런것을 놓고 감히 어떻게 《년례적인 방어훈련》으로서 조선반도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광고할수 있는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연습에 적용되고있는 전쟁각본들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감행되는 훈련이다. 지난해부터 이 전쟁연습에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고있다. 1978년에 처음 작성된 《작전계획 5027》은 가장 대표적인 북침전면전쟁각본으로 알려져있다. 《작전계획 5027》은 억제단계, 무력화타격단계, 지상공격작전단계, 전쟁성과확대단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는 단계로 짜여진 립체적인 공격작전계획이다. 이 작전계획은 근 120만명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각종 현대적인 군사장비들, 타격수단들이 동원되여 《외과수술식》타격, 전면적인 선제타격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한다. 여기에 맞춤형억제전략까지 첨부되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대규모련합상륙훈련이 그대로 재현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테두리내에서 《북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과 《대잠능력확보》를 떠들며 감행해온 련합해상훈련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3개해협봉쇄작전》의 련속이다.

결국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키 리졸브》, 《독수리》의 간판밑에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이런것을 놓고 감히 어떻게 《년례적인 방어훈련》으로서 조선반도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광고할수 있는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연습에 적용되고있는 전쟁각본들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감행되는 훈련이다. 지난해부터 이 전쟁연습에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고있다. 1978년에 처음 작성된 《작전계획 5027》은 가장 대표적인 북침전면전쟁각본으로 알려져있다. 《작전계획 5027》은 억제단계, 무력화타격단계, 지상공격작전단계, 전쟁성과확대단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는 단계로 짜여진 립체적인 공격작전계획이다. 이 작전계획은 근 120만명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각종 현대적인 군사장비들, 타격수단들이 동원되여 《외과수술식》타격, 전면적인 선제타격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한다. 여기에 맞춤형억제전략까지 첨부되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대규모련합상륙훈련이 그대로 재현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테두리내에서 《북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과 《대잠능력확보》를 떠들며 감행해온 련합해상훈련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당시 유사시의 전면전상황을 가상하여 벌어진

(전호에서 계속)

도전속에서의 핵강행군

2009년 따뜻한 봄날

온갖 꽃이 만발한 화창한 그 봄에 조선은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차례로 단행하여 성공시켰다. 이어 록색 무르익은 그 여름날에는 미싸일발사시험을 련이어 진행하였다. 정신차릴 틈도 없이 벌어진 이 사건들이 세계 각국을 놀라게 하였다.

제재를 추동하는 안보리사회결의 1874호가 채택되자 김일성광장에 10만여명이 모여들었다. 집회에서 평양은 《우리는 익측이 있건없건 국제적지원이 있건없건 자기가 선택한 길로 보무당당히 나아갈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환구시보》 7월 28일부는 《조선핵문제가 잊혀지겠는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글을 실었다.

《올해에 들어와 조선은 세가지 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첫번째는 핵계획과 미싸일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시키면서 선군정치를 내민것이다.

두번째는 핵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며 6자회담에서 영원히 탈퇴한다고 선포한것이다.

세번째는 조선이 5월부터 갑자기 〈150일전투〉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사업중심을 경제건설에 돌린듯 한것이다.

조선은 2006년 10월에 제1차 핵시험을 진행하고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되였다고 선포하였다.

이 세가지 일은 독립적인것같이 보이지만 사실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하나의 대전략의 세 측면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조선의 외교목표는 국제사회가 〈핵포기〉환상을 버리고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있는 기정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것이다.

조선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의연히 조선반도비핵화수호를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철저히 실패하였다는것을 명백히 알려주었으며 조선핵문제와 관련한 모든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조선핵문제를 론의할 여지없는 지나간 문제로 만들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조선핵문제에서 실패하였다는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였다.》

조선이 핵을 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은 대국의 개념에 땅이나 인구수를 꼽지 않는다.

조선은 대국의 가치에서 첫째로 국방력을 꼽는다.

이것은 국방력이 약한탓에 렬강들의 희생물로 되였던 과거력사가 준 가치관일것이다.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5개 대국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9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공인된 핵무기보유국들이다. 나머지 3개 나라(인디아, 파키스탄, 이스라엘)는 정치적으로는 핵국가로 인정받지만 법률적측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적이 없고 상기조항에 따라 핵보유국자격으로 조약에 가입할수 없기때문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문제성있는 핵보유국으로 주시되는 나라는 조선이다. 그렇다면 핵대국에로 가려는 조선의 핵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이다.

2010년이 저물어가던 어느 아침 《뉴욕 타임스》에 《조선, 거대한 새 핵시설 공개》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조선이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건설한 우라니움농축시설을 이달초(11월) 자국을 방문한 미국핵과학자에게 공개하였다. 이것은 오바마행정부에 대한 도전으로서 조선이 자기의 핵무기고를 확대하거나 보다 위력한 원자탄을 제조할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한것이다.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의 이전 소장이며 현재 스탠포드종합대학의 교수인 핵과학자 헥커는 한 인터뷰에서 새로운 핵시설이 정교하게 꾸려진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였다.

조선은 2006년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오바마대통령의 취임직후에 두번째 핵시험을 한 조건에서 이제는 사실상 핵보유국이나 다름없다. 조선에 가해진 제재조치들은 이 나라의 핵활동능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켰지만 평양으로 하여금 핵야심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이 준비하고있는 핵위력이 대단한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오래동안 매만져온 《화성》미싸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조선의 전령토와 중국의 린접지역들, 로씨야의 연해변강을 타격할수 있다. 《로동》중거리미싸일은 일본과 중국의 중부지역, 로씨야의 씨비리까지 날아갈수 있다. 그리고 《대포동》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이 성과적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알라스카와 하와이, 미국본토의 서해안, 아시아의 모든 지역들, 로씨야의 유럽부분 지어는 중앙유럽과 서유럽까지 타격할수 있다.

조선은 핵기술발전의 길로 계속 치솟아오르고있다. 외교와 경제원조라는 《당근》도, 고립과 외교적타격이라는 위협도 핵무기를 확고히 보유하기 위한 길로 나가고있는 평양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보여줄뿐이다.

우수한 선택

2011년 12월의 눈속에서 세계에 선보인 김정은제1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의지를 칼날처럼 표현했다. 즉 《선군계승의지의 선언》이다.

2012년 4월에 또 한단계 높이 오른 수준의 위성을 발사하도록 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위성발사를 다시 단행하여 거어이 성공시켰다.

다음해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에로 이끌었으며 3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적로선이라는 선포로 대국들의 심장을 아주 서늘케 하였다.

3단계의 위성발사와 3단계의 지하핵시험성공, 병진로선발표, 이 3대사변으로 김정은제1위원장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튼튼히 다지는 고삐를 단단히 틀어쥐였다.

자위적핵무력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구상한 김정은제1위원장은 그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세적자세를 취하였다.

최고사령관의 조직지휘하에 진행된 미싸일발사와 비행훈련, 땅크기동훈련과 항공륙전대의 투하훈련과 같은 군사훈련들은 조선의 국방력 및 군사적수준을 계속 상승시키며 비약하게 했다.

북핵력사는 계속되고있었다.

북핵로정도가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생겨난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무렵이다. 그후 반세기동안에만도 100여차례의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은 대체로 미국의 주도하에 벌어진것들이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통하여 사람들은 미국이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였다. 그런 나라들은 다름아닌 핵무기보유국들이였다. 한편 미국의 침략의 희생물이 된 발칸반도나 중동지역 나라들을 보면 과거 대국을 믿고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지 않았거나 미국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을 포기한 나라들이였다. 결국 이 나라들은 행복과 번영은커녕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하였다.

조선사람들은 핵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침략세력과는 오직 핵으로 맞서싸워야만 자기를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제일먼저 깨닫고 행동에 옮긴 선각자들이라고 기록될만 하다.

지구상에 핵무기출현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핵대핵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것은 핵전쟁의 파괴력, 살상력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히로시마나 나가사끼에 투하한 핵탄에 비할바없이 폭발력이 강한 핵무기들을 수천개나 가지고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을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30~50년이 필요했다면 세번째 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는 세계가 100년 아니면 200년간의 원시상태를 겪고서야 회복의 궤도를 타기 시작할것이라고 한다.

정의와 량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치와 자국의 리해관계를 떠나 인류앞에 정당하고 타당한 의견을 내놓고있다.

로씨야의 신문들에도 다음과 같은 글들이 발표되였다.

《명백한것은 북이 자체의 힘으로 거의 모든것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조선의 운반로케트 〈은하-3〉의 잔해들을 연구한 결과가 보여준것처럼 모든 주요부분품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제작된것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역의 많은 주요대국들사이의 관계가 첨예한 조건에서 평양은 부득불 군사강국의 본보기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의 론리를 보다 구체화해보자.

원자탄과 미싸일개발은 그 어떤 스텔스비행기나 놀랄만한 정밀도를 가진 순항미싸일, 《지능탄약》과 기타 고도기술무기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 그렇기때문에 순수 경제적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선으로서는 핵폭탄을 만들어 믿을만 하게 시험하고 그것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다음 잠재적인 적수들의 기를 꺾어놓는 《비대칭적인 대응》의 길을 택하는것이 실리적인것이다.

미싸일 및 핵야심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 이 무기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의 론리는 바로 이것으로 설명된다.

핵보유국의 길을 강행군해온 김정일국방위원장을 계승하여 핵무력건설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해나가고있는 김정은제1위원장의 구상은 점차 세계의 인정을 받고있다.

조선사람들은 미국의 핵선제공격대상의 첫번째 목표는 바로 자국이라고 생각하고있다.

핵보유를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속에서 자기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선택이라고 보는 조선사람들의 견해를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하며 핵무기위력이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크다고 보는 그들의 견해를 부정해볼 틈이 이제는 없어졌다.

조선은 자기의 핵지위로써 대국들의 각축전의 희생물이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

조선의 새 세대들은 선조들이 쓰라린 아픔을 당한것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들이 남긴 교훈과 당부를 충분히 존중하고있다.

조선이 핵무력강화의 길로 가는것이 결국 옳았다는것을 보다 생동하게 증명해주는것은 미국의 새로운 핵구상이다.

미국은 2015년 새해를 맞으면서 300억US$를 들여 핵무기관리체계를 전면개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방장관 헤이글은 핵무기운용체계가 낡고 관리상태에 여러가지 허점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5년간 100억US$를 투입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특히 핵, 미싸일부대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미공군국제타격사령부 사령관의 급수를 4성장군으로 승격시키고 인원도 대폭 늘이기로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오래전에 발표한 《핵무기없는 세계》구상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다.

결국 오바마의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은 결국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집권초기 그는 임기중에 비록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실현을 보기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하겠다,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드는것은 자기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귀를 솔깃했으나 조선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2014년말 로씨야의 한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오늘날 국제무대의 힘의 균형에 대해 랭정하게 평가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조선의 핵보유는 단호하고 용감하며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대한 존경으로 떠오르고있다. 조선의 핵보유야말로 쏘련이 해체된 이후 나토와 야합하여 전횡을 다 부리는 미국을 길들이는 공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핵대국의 출현은 세계평화와 안전, 안정을 더욱 강화해주고있다. 진보적인 세계는 강의하고 근면한 조선인민의 손에 핵무기가 쥐여져있는 한 세계평화가 보장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이 핵무기가 언제나 선량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을 억제하는데 전적으로 기여하기때문이다.》

조선의 핵문제를 주시해온 한 력사학자는 《핵억제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얼마든지 새 전쟁을 일으켰을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선은 막강한 억제력을 보유하고있다. 조선의 억제력을 가리켜 평화의 믿음직한 담보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핵보유국이 된 조선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한 력사적의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조선이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선포한 2005년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래 10년을 생각해보면 어떤 모습일가.

조선사람들은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은것도 미국이며 조선에 전쟁의 참화를 입힌것도 미국이라는것을 언제나 강조하고있다.

그들은 수십년간의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사람들을 편안히 살수 없게 만든것도 미국이라고 규탄하고있다. 그 규탄의 도수는 대를 이어 고조되는 상태이다.

조선이 핵보유국으로 되는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것은 무엇보다 조선사람들자신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한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이끌고가는 지도자의 결심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것 또한 그 국민들이 평가하는것이 먼저이다.

미국도 이제는 조선과 그 지도자의 생각을 충분히 알 때가 되였다고 보아진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의 지도자들의 생각을 모르는척 해왔다. 그리고 왜 국민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지지하고있는지에 대해서도 외면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제 더 그 전술을 반복해서는 안될 때가 되였다.

미국은 보다 큰것을 보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편안하게 공존할 때 세계에는 안정과 평화가 깃들고 인류는 행복과 발전과 공영의 길로 나가게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주시하고 관심하는 모든 국가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같은 깨달음이 옳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인터네트신문 《1코리안뉴스》에 실린 글

무엇때문에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계단식으로 확대되고있다. 얼마전에는 미해군의 이지스구축함 《라쎈》호, 《죤 에스. 맥케인》호,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호, 구조함 등이 남조선의 동해항과 평택항에 줄줄이 쓸어들어 전쟁연습에 합세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지스구축함 《마이클 머피》호가 기여들어 남조선해역을 돌아치며 짙은 전쟁화약내를 풍기고있다.

미국은 곧 남조선괴뢰들과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쌍룡》상륙작전훈련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나날이 확대되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범위는 그것이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을 띤 위험천만한 전쟁불장난소동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극단으로 번져지고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연습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폭로규탄하면서 미국이 그것을 즉시 중지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된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미당국자들이 이러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것을 귀등으로 흘려보내며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며 《년례적》이라는 판에 박은 소리만 외워대고있다. 이것은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에로 유도하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무엇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자는것이다.

지금 세계의 초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에로 쏠리고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에 있어서 이 지역은 사활적인 곳으로 되고있다. 이 지역에서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세계를 지배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대외정책의 중심을 이 지역으로 돌리고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미국에 도전할수 있는 대국들이 있다. 이 나라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한것으로 되여있다. 미국은 이것을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해군무력의 60%를 배비하고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 하고있다. 결정적인 군사적우세로 도전자들을 억제하고 미국을 유일한 《초대국》으로 하는 세계를 만들자는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 대국들의 응당한 경계심과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비롯한 무력증강을 강행할 경우 그에 대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것을 밝히였다. 실지 그러한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국은 지역의 대국들의 경계심을 눅잦히고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할수 있는 구실을 필요로 하고있다. 바로 그래서 미국은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있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이 마련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증강할 구실은 물론 남조선에 미군을 남겨둘 명분마저 없어지기때문이다.

정세분석가들이 미국이 고의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려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려 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반도정세가 항시적인 긴장상태에 놓여있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을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구실을 만들어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자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의 정세악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쟁발발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전조선반도를 틀어쥐고 이곳을 전략적거점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의 대국들을 제압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고도의 경각성과 긴장성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떤 형태와 방식의 전쟁에도 대응할수 있는 전법과 수단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위력한 전쟁방식앞에서 미국은 반드시 파멸을 면치 못한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희생물로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리 학 남

쁘로꼬삐스 빠블로뿔로스 그리스대통령으로 취임

쁘로꼬삐스 빠블로뿔로스가 13일 그리스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지난 2월 18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미국의 위협책동에 맞서나갈 립장 강조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10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책동에 단호히 맞서나갈 립장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는 평화롭고 존엄높은 나라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위협으로 간주하고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베네수엘라정부는 미국의 위협과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이룩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조성된 정세에 맞게 모든 정치세력들이 굳게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자연재해

이딸리아에서 최근 강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시속 115km의 강풍으로 6일현재 3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되고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히워 넘어져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한편 중부지역에서 화산태에 의한 가스관폭발로 8명이 심한 화상을 당하였으며 약 25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였다.

신형독감피해 계속 확대

인디아에서 최근 신형독감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 나라 보건성은 전국적으로 A(H1N1)형돌림감기비루스에 의한 사망자수가 119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자수는 2만 2240명에 달하였다 한다. 병의 전파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항거하는 팔레스티나인들

확대발전하는 조로친선관계

오늘은 조로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력사적인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6년전인 1949년 3월 17일 우리 나라와 쏘련사이에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것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추동한 사변적계기로서 조로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인민은 이날을 맞으며 강화발전하여온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조로 두 나라는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협정을 법적기틀로 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경제, 문화적협조와 교류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지난해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주의전사야. 떼. 노비첸꼬의 생일 100돐에 즈음하여 보내신 화환을 진정하며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사가 야. 떼. 노비첸꼬의 고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11월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가 모스크바와 울라지보스또크, 하바롭스크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특사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뿌찐대통령과 담화를 진행하였으며 조로 두 나라사이의 호혜적인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뜻깊은 2015년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들에서의 교류와 접촉을 가일층 심화시키려는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조로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와 로씨야사이에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뿌찐 로씨야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전통적인 조로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담화를 하였다.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일련의 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과 로씨야련방 아무르주정부사이의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으며 우리 나라 철도성과 로씨야 《모스또비크》과학생산련합체사이의 철도운수부문 협조에 관한 문건이 조인되였다.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대통령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와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 상공회의소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 동발전상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회담록에 조인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상이 로씨야를 방문하여 로씨야련방 외무상과 회담을 가지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로씨야정부가 우리 나라에 현대적인 소방차들과 식량을 지원한것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고무로 되였다.

조로친선의 뉴대는 나날이 두터워지고있다.

지난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정부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얼마전에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로씨야를 방문하여 쌍방간의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가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 기간 두 나라는 국가기관 및 지역들사이의 대표단교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평양과 모스크바를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여러 도시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진행하게 된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두 나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속에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김 수 진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는것이 력사이다

일본이 과거범죄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일제가 감행한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들에 대한 미화분식은 과거침략사를 가리우기 위한 추악한 력사외곡책동이다.

국민들속에 군국주의적력사관과 복수주의감정을 주입하여 자그마한 죄의식까지도 없애버려 재침을 위한 사상정신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자는데 력사외곡책동의 범죄적목적과 위험성이 있다.

최근 국제문제전문가들이 력사를 외곡하려는 일본을 그대로 방관시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형성된 세계질서의 론리가 모두 무너질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일본이 미화분식하려는 과거범죄는 매우 엄중한것이다. 특히 일제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악독한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무자비한 총칼과 간악한 음모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수십년간에 걸치는 식민지군사파쑈통치기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조선인민을 학살했다.

1906년 여름부터 1911년까지 15만명이상에 달하는 조선애국자학살, 1920년 한해에 가장 가혹하고 악착한 방법으로 3만여명의 조선사람을 죽인 《경신년대토벌》, 1930년대에 《조선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가운데 적어도 공산주의자가 한명은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라.》는 폭언과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으라.》는 《3광정책》을 떠들면서 벌어진 조선인《토벌》, 1938년이후 조선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랍치, 련행하여 전쟁대포밥으로,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아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천인공노할 죄악은 력사에 그대로 기록되여있다.

일제는 강점기간 조선의 지하자원과 문화유물을 비롯한 물질문화적재부를 깡그리 략탈하였다. 천문학적수자에 달하는 귀중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강탈하였다. 나중에는 놋으로 된 숟가락까지 강탈해갔다.

《조선력사가 남아있게 되는 경우 일본이 조선력사를 수용하였다는것이 남아있게 되므로 조선력사를 진멸하여버림으로써 그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는것이 좋다.》는 강도적론리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력사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고전에 대한 수색작전을 벌리고 수백명의 일본《학자》들을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 들이밀어 헤아릴수 없는 많은 고서적들을 빼앗아갔으며 조선력사를 기록한 력사문헌들을 《불온도서》라고 하면서 20여만권이나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저들의 《국보》라고 세계에 자랑하는 도꾜국립박물관에는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조선문화재 4만여점을 비롯하여 고려자기, 민족고전 등 수십만점이 있다.

이처럼 날강도 일제에 의해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 인적, 물적피해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최대최악의것이였다.

일본이 패망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되여오지만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국가적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과거력사를 부정하고 외곡하는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일본의 력사교과서들에서는 반일의병과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학살, 1919년 3.1인민봉기와 1926년 6.10만세운동, 1920년 《경신년대토벌》, 1923년 간또대지진시 감행된 조선인대학살만행에 대하여 언급도 하지 않고있다. 조선력사는 예속의 력사이고 조선민족은 력사적으로 《속국》의 운명에 놓여있은듯이 력사교과서들에 서술하였으며 조선인강제련행을 《조선인들의 자발성에 의한것》으로 지어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가 《조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떠벌이면서 식민지지배의 《합리성》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에서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자원적의사》에 의해 산생된것이라고 줴치면서 우리 인민을 모독하고있다.

저들의 일부 교과서들에서 《종군위안부》, 《강제련행》표현을 완전히 빼버리다 못해 외교대표부들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력사교과서내용까지 수정할것을 강요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력사를 똑바로 대하지 않고 침략죄행의 진실을 가리우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일본은 하루빨리 인류와 력사앞에 지은 죄많은 과거사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길만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찾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 철 룡

ㄱ-51042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